

2000년 이후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Worship Spaces in Korean Churches after the Year of 2000

성은석* / Seong, Eun-Seok

한동욱** / Han, Dong-Wook

Abstract

This study is for figur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logical trend and the design of worship space in Korean churches after the year of 2000. Analyzing the design samples of worship spaces which are appeared in architectural and interior design publications, it is found out that the modernity in architectural and interior design is presented in many worship spaces. And the progressive effort for the renewal of the worship service is projected to composition of the pulpit and others. But the conservatism of the Korean church has not been eliminated yet.

키워드 : 예배공간(the worship space), 의장(design), 신학적 흐름(the theological trend)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교회건축은 일반적으로 건축의 다양한 관점 중에서 조형성을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예배공간은 독특한 상징적 조형체계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예배공간은 실질적인 기능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예배의식의 변화와 배후의 신학적 배경을 제외한 상태에서 예배공간의 건축적 조형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시도에 불과할 수 있다. 특히 종교 활동의 양상이 과거의 일원적 모습에서 다원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회건축의 기능적 요인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상징체로서의 기능공간을 제안하는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된지 이마 20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발전상을 이루어 왔다. 자연히 교회건축도 활발하여져 많은 유형의 예배공간이 조성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현대교회 예배공간은 장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구 교회와 달리, 자생적으로 정립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일정한 시대적 양식이 부재하는 현대건축의 조류와 함께 이러한 현상은 한층 다각화

되어 현대 한국교회 예배공간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리보다는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감성에 의지하여 이루어져 오고 있다고 사료된다.

여러 목회관련 세미나 및 서적 들을 통하여 보면, 목회자들의, 교회건축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들어서면서 나름대로의 명확한 교회건축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장 단계를 지나 성숙기에 들어선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반영하듯, 매우 다양화된 교회건축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의 신학적 흐름의 변화와 예배공간 의장계획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2000년 이후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의장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디자인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대상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의장적 특성을 최근 신학적 흐름의 변화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 범위 및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시기적으로 최근 3년간으로 한정된 것은 2000년을 기점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최근의 기간적 범위를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교파적으로 개신

* 정회원,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교회로 한정된 것은 개신교회의 예배공간이 개 교회별로 목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개별화의 속성이 강하게 인식되며, 따라서 개별적 사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일정한 유형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 상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배공간의 건축적 속성 중 의장적 특성으로 한정된 것은 실내공간의 의장이 다른 건축적 특성에 우선하여 이용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건축 전문 정기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이와 동등한 대표성이 인정되는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건축 전문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교회건축이 대부분 건축적 특성이 명확하며, 그 선도적 의미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 현대 교회의 신학적 흐름과 예배공간의 의장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 및 방법으로 진행한다.

- ① 한국 교회의 신학적 흐름을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한국교회는 사회적 흐름과 달리 최근에서야 ‘현대성’을 갖기 시작하였다는 전제 하에 한국교회의 ‘현대성’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 ② 예배공간의 의장계획에 대한 이론을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최근 예배공간의 의장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 ③ 2000년 이후 최근 3년간 현대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의장적 특성을 건축 전문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평면 형상 및 축성, 스케일, 강단부 및 회중석의 구성 방식, 강단부의 장식요소, 자연광 도입방식, 색채계획 및 마감계획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 ④ 분석된, 2000년 이후 현대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의장적 특성을 신학적 흐름의 변화와 비교하여, 한국 교회의 신학적 흐름과 예배공간 의장계획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2. 한국 교회의 새로운 흐름과 예배공간

2.1. 한국 교회의 새로운 흐름

19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부부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들어옴으로써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선교 초기의 계몽기를 거쳐 교회 자립 후 삼일 독립선언 운동을 주도하였던 한국 개신교회는 이후, 일제 통치기와 한국 전쟁기를 거치면서 내향적이고 구복적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폭발적인 교세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1983년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은 5,337,308명으로서 전국 종교인구 대비 34.24%, 총인구 대비 13.45%에 이르고 있다¹⁾.

이러한 비율은 1989년에 19.2%로²⁾, 1998년에 20.7%로³⁾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회의 이러한 교세 확대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정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된다⁴⁾. 이러한 현상은 다종교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에 기인한 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개신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고 있다⁵⁾. 이에 따라 목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처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1998년의 한국 개신교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 교회의 교세 확대는 이전과 같은 괄목할 수준에 이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교회간 교인 이동 현상의 증가에 따른 개 교회별 교회마케팅(Church Marketing)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대사회적 활동의 증대, 예배형식의 전통성 탈피 등 한국교회가 가진 기존의 보수적이고 배타적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는 한국 교회가 성장의 주 배경으로 하였던 20세기를 지나 21세기로 들어서는 시기로서 미래사회의 비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성’의 대표적 모습으로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unity in diversity) 사회’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⁶⁾. 또한 현대사회는 일회성(disposability) 사회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교회의 연합이 요구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 선교 지향, 가정 중심적 목회 활동, 여성의 목회적 역할 증대, 사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강조,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목회 패러다임 전환, 목회의 영성적 기능 강화, 소그룹 목회의 추구, ‘찾아가는 교회’의 개념 정립, 그리고 예배형식의 다양화, 멀티미디어화, 축제화, 일상화 등 예배의 갱신 등이 향후 한국 개신교회의 변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성희, 1999).

이에 따라 일부 목회자들에 의한 실제적인 적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체육관,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의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를 건립하고 농구장을 예배공간으로 활용하는 교회가 등장하고⁷⁾, 교회당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며, ‘신학과 교회는 교회당 건물에 대해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음을 밝혀야 하며’, ‘교회당 앞에 특별석처럼 놓여 있는 장로석은 없어야 한다’는 제안⁸⁾ 등은 한국교회의 갱신과 새로운 비전이 교회건축에 투영되고 있는 사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1)1983. 10. 1. 현재 시·도 상주 인구조사 통계, 한영계 편, 한국기독교성장100년, 기독교문사, 1993. p.198에서 인용.

2)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여론시리즈 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제2차 조사보고서(1989년 비교조사), 1990. p.28.

3)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편,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도서출판 두란노, 1999. p.35.

4)ibid. p.35.

5)ibid. p.47.

6)이성희, 한국교회 미래목회를 본다, ibid. p.163.

7)파이낸셜뉴스 2001.7.6. “교회도 이제 마케팅으로 승부” 보도내용에서 인용.

8)이성호, 한국교회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도서출판 실로암, 2000.

2.2. 예배공간의 계획과 의장

전통적으로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구성계획은 교리에 좌우되었으며, 의장은 고딕건축의 의장원리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조경수(1999)는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교회건물은 20세기에 들어서도 과거의 것, 특히 고딕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현대건축으로서의 교회건축에 많은 방해를 받았다고 하였다⁹⁾. 이러한 경향은 지역교회의 국외지역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전초기지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려는 의도에 영향받은 것으로 사료된다¹⁰⁾. 즉, 19세기 중반 영국의 퓨진(Augustus Welby Pugin)과 19세기 후반 독일의 헤겔(Hegel), 프랑스의 비올레 르 뒤(Eugene Viollet-le-Duc) 등에 의하여 이론화된 신고딕주의 교회건축은 신앙의 표상과 도덕화된 건축이념으로 인하여 교회건축의 대표적 이미지로 고착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19세기 말 서구 제국주의의 확대와 케를 같이 하는 아시아 지역의 개신교 선교는 이러한 경향을 아시아 지역에 고딕식 예배공간이 가장 이상적 예배공간으로 각인되는 영향결과를 낳았고 파악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까지도 이러한 고딕식 예배공간은 다소의 변종 고딕식으로 변화되어 구축되고 있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더욱이 예배공간의 의장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형식과 상징을 사용하는 태도가 증가'¹¹⁾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이러한 교회건축의 상징적 이미지들을 종합하여 분류한 연구결과, 방주, 방패, 수정, 사다다리, 알파와 오메가(A, Ω), 면류관, 무지개, 십자가, 접시, 하늘, 비둘기, 빛 등 성경 속 상징과 공동체, 등대, 손, 물고기, 돌, 경사로, 카타콤, 문, 좁은 문, 길 등 교회에서 통용되는 서술적 상징으로 제시되고 있다¹²⁾. 또한 십계명 2개의 석판에서 차용된 숫자 2, 삼위일체에서 유추된 숫자 3, 12지파에서 비롯된 숫자 12 등 숫의 상징적 사용 사례¹³⁾도 발견되고 있다.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은 이와 같이 상징적 체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이고 직접적인 상징과 별도로 교회의 개념과 예배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예배공간의 계획과 의장이 변화, 발전된 바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초대교회에서 초기그리스도교, 로마네스크 및 비잔틴,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의 시기적 변화에 따라 나타난 공간의 특성은 각각, 유축형과 유심형이라는 독특한 축성의 유형을 나타냈으며¹⁴⁾, 강단 구성은 교회의 신학적 표현을 따라 중심축형,

삼각축형 등으로 구분하고¹⁵⁾, 성가대석은 유형별로 강단부 배치형, 회중석 배치형, 회중석 후면발코니형, 알코브형 등으로 구분하는¹⁶⁾ 경향으로 계획되어 오고 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예배공간이 다목적화함에 따라 가변성이 주요한 예배공간의 계획목표로 대두되고 있다¹⁷⁾.

이러한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디자인 특성은 현대 한국 건축가와 인테리어디자이너들에게 제약적이면서 동시에 주요 디자인개념의 원천으로서 작용하여 왔다고 사료된다. 특히 빛은 현대건축에서 중요한 의장적 요소로서 측창, 천창, 정측창 등의 형태¹⁸⁾로 내부 공간의 의장적 이미지를 고양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인테리어디자인에서의 중요한 계획요소인 색채계획에 있어서 난색 계열의 저채도 및 조화색 위주의 색채계획이 제안됨으로서 감성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¹⁹⁾.

이와 같은 예배공간의 계획 및 의장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예배공간의 계획 및 의장인자로서, 목회방침, 수용규모 등 인문적 요소, 평면형상 및 축성, 강단부 구성, 성가대석, 상징적 이미지, 자연광 조명방식 등 예배기능 및 상징적 요소, 색채 등 인테리어디자인 마감요소 등을 설정할 수 있다.

3.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의장적 특성

3.1. 개요

2000년 이후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의장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 및 인테리어 전문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50개 사례들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건축 및 인테리어 전문 정기간행물의 속성상, 건축가와 인테리어디자이너의 의도가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이들의 작업과정에서 신학적 개념은 건축적으로 여과되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설정한 교과, 예배공간 규모, 평면형상 및 축성, 강단부 구성방식, 목회자-장로석 강단내 배치 방법, 성가대석 배치 유형, 회중석 의자형태, 단면형상, 강단부 십자가 설치, 강단부 기타 장식적 요소, 강단부 자연광 도입장식, 회중석 자연광 도입비율, 회중석 자연광

9)조경수, 20세기를 전후한 교회건축의 근대적 변천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0호, 1999. 8. p.71.

10)William J.R.Curtis 저, 강병근 역, 1900년 이후의 현대건축, 도서출판 화영사, p.310.

11)채한수, 교회건축의 양식과 상징에 관한 연구, 감리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p.65

12)박기용·김정재, 한국 현대 교회건축에서 표현된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4호(통권162호) 2002.4. pp.124~131.

13)박기용·김정재, 한국현대 교회건축에서 나타난 수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8호(통권154호), 2001.8. pp.5~12.

14)한동욱, 한국교회 예배공간의 건축적 유형과 공간체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pp.55~56.

15)홍순명·홍대형,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1호 통권33호, 1991. 2. p.156.

16)한동욱, op.cit. p.86.

17)이진영·한영호,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예배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9호 1999. 6. p.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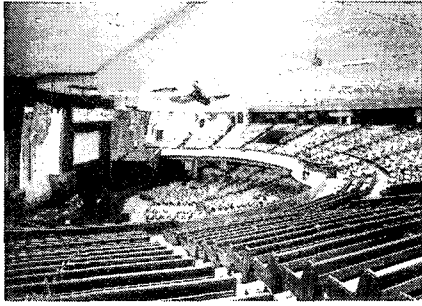
18)이종희, 현대 교회건축에 있어서 차의 형태에 따른 빛의 유입방식 및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0호 2002. 2. pp.71~76.

19)장형준, 새집줄게 헌집다오 교회 인테리어&리모델링의 실제, 교회공간 연구소 필, 2001.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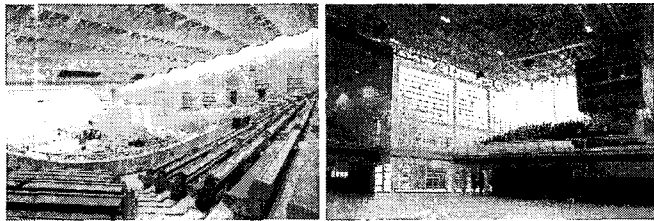
도입방식, 강단부 색채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3.2. 교파

분석대상 교회는 대부분 장로교 교단 소속으로서 가변형 강단부의 도입, 장식적 요소의 배제 등, 예배공간의 의장적 특성이 다소 진보적으로 나타나는 소수의 교회는 대부분 초교파 혹은 장로교회에 속하고 있다. 반면에 장로교회 예배공간의 다수는 여전히 보수적 의장계획을 보여주고 있어 장로교단 내부적으로 예배 갱신에 대한 입장의 스펙트럼이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이형 단면형의 사측성 타원형 예배공간(주안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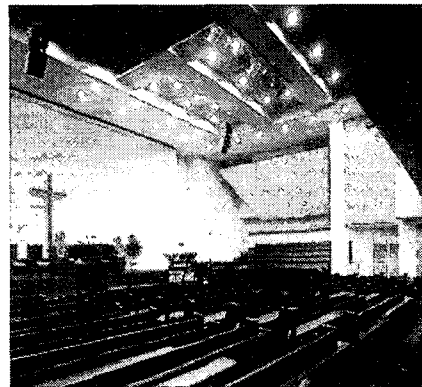
<그림 1> 보수적 장로교회 예배공간 (강북제일교회) <그림 2> 진보적 장로교회(남서울은혜교회)

3.3. 예배공간 규모, 평면형상 및 축성, 단면형상

분석대상 교회의 예배공간 규모는 대부분 중대형이거나 중소형으로서 건축적으로 의미 있는 예배공간의 조성이 중형교회를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면형상 및 축성은 대부분 방형의 장축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예배공간의 고유성은 여전히 준수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단면형상에 있어서 단일형의 경향이 강한데 일부 중대형 예배공간에서는 음향조건을 고려한, 오디토리엄식의 단면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대 건축적 조형의식과 신학적 상징의식이 복합된 예배공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방주를 건축적으로 표현한 주안장로교회와 할렐루야교회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배공간의 공통적 특징은 목회자의 강대를 시각적 중심으로 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예배공간의 강단부에 대한 주목성을 높이기 위한 부채꼴 평면형의 사측성 예배공간이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즉, 개신교회 목회와 예배가 목회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4. 강단부 구성 방식 및 목회자-장로석 강단내 배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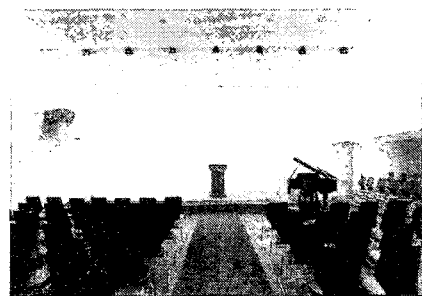
예배공간의 보수/진보성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예배공간 구성요소가 강단부이다. 분석대상 예배공간의 다수가 강대·사회대·제단을 분리하여 중심축형 혹은 삼각축형으로 강단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강단부의 권위에 따른 위계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예배의 형식 또한 전통적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예배공간은 목회자-장로석 역시 모두 강단부에 배치시킴으로서 목회자와 장로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장식적 요소가 절제된, 매우 현대적인 예배공간에서도 이러한 권위적 잔재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 찾아볼 수 없었던 단독강대 혹은 가변형 강대 형식으로 강단부를 구성하고 목회자-장로석을 배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음은 명백한 변화의 증거로 인식된다.



<그림 5> 전통적인 강단부 구성의 예배공간(제일영광교회)



<그림 3> 단일형(오디토리엄) 단면형의 장축성 방형 예배공간(경기중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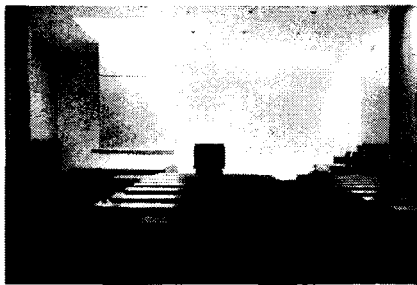
<그림 6> 가변형 강단부 구성의 예배공간(목양교회)

3.5. 성가대석 배치 유형, 회중석 의자형태

성가대석은 대부분이 강단부와 분리하되 회중석과 차별화한 위상으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성가대 개념을 가진 교회에서는 회중석에 대향 배치하거나 알코브 등 별도의 성가대석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별도의 성가대석이 없이 성가 시에만 강단부에 등단하는 가변형의 성가대석 배치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회중석 또한 다양한 예배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개인화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의자를 설치하는 사례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6. 강단부 십자가 설치, 강단부 장식적 요소

건축에 있어서 현대성의 도입이 예배공간에 안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앙적 상징체로서 기능하였던 강단부의 장식적 요소가 거의 대부분 제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의 설치는 많은 수의 예배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개신교회의 영성이 아직까지도 보수적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림 7> 십자가와 장식적 요소가 절제된 예배공간(세계비전교회)

3.7. 강단부 자연광 도입방식, 회중석 자연광 도입비율 및 도입방식

건축적으로 교회건축에서 자연광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분석 대상 예배공간은 다수 자연광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강단부 자연광 도입 방식인 정광(천창), 편측광(클리어스토리) 외에 배광(후면 전면창)의 도입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는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물의 교회’ 이후 건축적 관심을 모은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오디오리엄 방식의 예배공간은 대부분 인공조명으로만 조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다목적 예배공간의 연출을 위한, 자연광의 효율적인 제어가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배공간의 강단부는 여전히 전통적인 구성방식을 보이는 모순을 보이기도 하고 있다.

회중석의 자연광 도입비율은 사례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 주광효과와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회중석의 자연광 도입방식은 대부분 측광(측창)

에 의한 것으로서 예배공간의 자연광 도입은 여전히 강단부의 상징적 이미지 고양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접적인 상징적 이미지의 사용은 절제되고 있으나 여전히 예배공간을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상징적 이미지로서 차경을 도입한 배광 형식의 강단부(강화 계산교회)

3.8. 강단부 색채

강단부의 색채는 이전 시기에 비하여 확실하게 절제되고 세련되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주조색과 보조색의 조화, 액센트색의 효과적인 사용 등이 그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주조색의 주류는 백색과 베이지색 등으로 동시기의 전반적인 실내 색 조류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액센트색은 대부분 강대보, 십자가 등 시각적 초점을 이루는 요소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적색 카펫이 여전히 시각적 주목색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아직 근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4. 결론

최근 한국 개신교회는 교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목회 및 예배 갱신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즉, 보수적이고 전통적 개념의 예배의식 대신 현대성에 기반한, 영성 위주의 목회관과 예배의식의 다양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는 예배공간의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에 강한 영향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0년 이후 최근 3년간의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교회의 이러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대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향이 예배공간의 계획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회의 보수성은 아직 완전히 탈피되지 않아 현대적 의장의 공간과 전통적 예배공간 구성요소의 병존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신학적 흐름과 최근 3년간의 예배공간의 의장적 특성을 비교하여 검토함으로써 의장계획의 시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단편적인 교과 분류와 단선적 기준에

의한 의장요소 분석은 현재 한국 교회건축 예배공간의 대체적인 의장계획 경향을 밝히는 데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목회방향, 의장요소의 심층적 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실증적인 연구로 발전하여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1. 1983. 10. 1. 현재 시·도 상주 인구조사 통계, 한영계 편, 한국기독교성장100년, 기독교문사, 1993.
2.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여론시리즈 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제2차 조사보고서(1989년 비교조사), 1990.
3.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도서출판 두란노, 1999.
4. 파이낸셜뉴스 2001. 7. 6. "교회도 이젠 마케팅으로 승부".
5. 이성호, 한국교회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도서출판 실로암, 2000.
6. 조경수, 20세기를 전후한 교회건축의 근대적 변천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0호, 1999. 8.
7. William.J.R.Curtis 저, 강병근 역, 1900년 이후의 현대건축, 도서출판 화영사,
8. 채한수, 교회건축의 양식과 상징에 관한 연구, 감리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9. 박기용·김정재, 한국 현대 교회건축에서 표현된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4호(통권162호) 2002. 4.
10. 박기용·김정재, 한국현대 교회건축에서 나타난 수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8호(통권154호), 2001. 8.
11. 한동욱, 한국교회 예배공간의 건축적 유형과 공간체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12. 홍순명·홍대형,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1호 통권33호, 1991. 2.
13. 이진영·한영호,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예배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9호 1999. 6.
14. 이종희, 현대 교회건축에 있어서 차의 형태에 따른 빛의 유입방식 및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0호 2002. 2.
15. 장형준, 새집줄게 현집다오 교회 인테리어&리모델링의 실제, 교회공간연구소 필, 2001.